

담임선생님 추천으로 갔던 전공,
만족도 100%의 직업이 되다! '물리치료사'



안녕하세요!

보건 계열 진학을 꿈꾸는 친구들은 주로 어떤 진로를 희망하나요?
아마 '간호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가 가장 많겠죠?

오늘은 조금 다른 진로인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생소하지만, 알고보면 취업의 길도, 미래도 든든한 직업 '물리치료사'!

지금부터, 물리치료사는 어떤 직업인지
인터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자기소개와 현재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6년차가 된, 물리치료사 장송아 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물리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면 **정형, 신경계, 통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그 중 저는 현재 재직중인 병원에서 **신경계 재활 운동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안에 물리치료실은 신경계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실이 대부분인데요.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고 온 아급성기, 만성기 환자들이 많으며 **운동치료, 기구를 활용한 치료,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기(FES)** 등이 진행됩니다!

재활치료실에서 운동치료까지 겸하게 되면, 재활과장님과 병원의 도움을 받아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시험을 합격하면 **자격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재활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분야도 다양하지만,
깊게 공부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해당 직업을 선택하게 된

시기와 계기는 언제이신가요?

A.

아마, 이 인터뷰를 보는 대다수 고등학생들은

몸에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핫팩(찜질) 또는 아이스팩, 초음파, 전기치료 정도의 통증치료를 받아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을거예요.

또는 흔히 마사지 해주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러했고요!**)

학창시절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어 병원에 가보지도 않아 너무도 생소한 직업이었지만, 고3 시절 진로를 찾는 중요한 때에 **담임선생님 권유**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이, **단지 취업이 잘된다는 이유 하나**로 선택하게 되었지만, 교수님을 포함해 모두가 제게 '**천직**'이라고 말할만큼, 계속 **추가 자격을 얻고 공부하며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3 담임선생님의 추천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전문성도 직업에 대한 만족감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3 담임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물리치료사는 **관련 지식이 없어도, 이 직업이 생소해도**, 얼마든지 지금의 저처럼 **전문가로, 선생님이로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니, 인터뷰를 보는 학생 중, 보건 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전공에 대해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Q3.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A.

저는 3년제 대학 물리치료과에 진학하여 공부했기 때문에, 4년제와 달리 배움에 있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고등학교 시절과 같이 주어진 시간표와 야간 자율 학습까지 마치 고등학교 6년을 다닌 듯**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쩌면 고등학교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시절이기도 해요^^)

물론 대학생활 재밌게 했고, 연애도 했고, 동아리활동 등 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연장해온듯 **해부학, 생리학, 질환별물리치료, 운동치료, 의료법규, 공중보건학, 의학용어, 측정및평가** 등등 끊임없이 공부해야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몸을 직접 다뤄야기 때문에 근육과 뼈 관절 등을 직접그려보고**, 영어도 어려운데 **생소한 의학용어를 열심히 외우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방학때는 **실습위주**로 공부하며, **다양한 병원시스템과 많은 선생님들의 치료 방법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가고시 합격**을 목표로 매년 모의고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 실제 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장송아
선배의 모습

Q4. 어떤 **성향**을 보유한 **후배**에게 해당 직업을 **추천**하고 싶나요?

A.

우선 서비스직업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성소모가 있습니다. 대부분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이므로 치료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시 중요시 되는 라포형성(Rapport building)을 위해, **환자와의 친밀감과 신뢰관계도** 쌓아야합니다. 또한 **봉사정신**이 필요하며, 성격 유형으로 봤을 때, **사회형과 현실형의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Q5.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단계**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우선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물리치료사 면허증**이 필요한데, **국가고시**를 합격해야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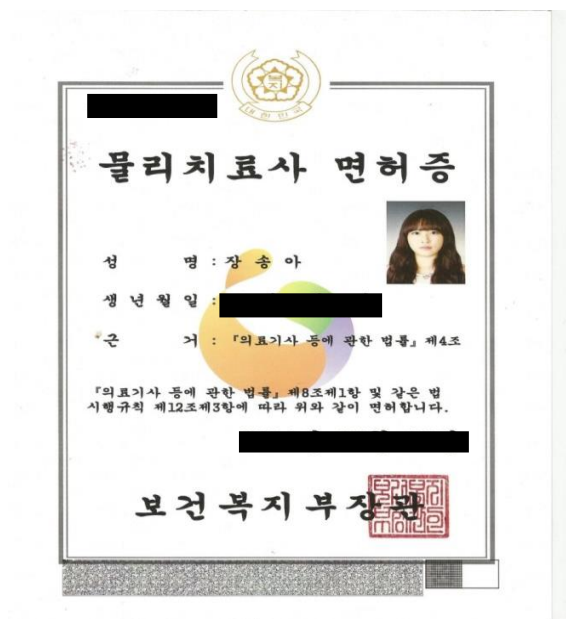
물리치료과(3년제 또는 4년제)를 꼭 다녀야 시험을 볼 수있고, **국가고시**를 합격해야만 면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좋은 곳에 취업하려면 **학점관리**는 필수겠지요? 소위 대학병원급이상을 생각하는 친구라면 **토익**을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는 **절대평가로 합격률이 낮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다 붙을수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대로 공부 열심히하고 방학때 하는 임상실습을 하며 임상선배님들의 치료를 observation과 assist 하며 현실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근골격계(OS)신경계(NS)가 맞을지 **물리치료사로서 진로**를 정할수도 있죠.

정리하자면, **물리치료과 진학 ▶ 학점관리 및 토익 ▶ 임상실습 및 진로 고민 ▶ 국가고시 준비 및 합격 ▶ 면허증 발부 ▶ 물리치료사!**
순서가 되겠네요:)



▲ 실제 물리치료사 면허증 사진

Q5. 해당 직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물리치료과를 선택할 때, 어느정도 전통이있고 누가 들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사실이나, **높은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높아 걱정인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싶어요.**

물리치료계에선 연차가 더 중요시 되는 부분이 있어 민감한 돈문제! 연봉에는 3년제, 4년제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3년제 선생님들이 더 빨리 졸업하고 임상에 나가기 때문에 연차가 높아져 연봉이 더 많아질수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전공심화과정이 생겨서 공부에 뜻이 깊은 친구들은 학사를 취득 할 수도 있습니다. 3년제와 4년제는 배움에 있어 시간적 여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의료기사)가 생각보다 화려한 직업은 아닐거예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인) 뒤에서 묵묵히 일해야해요. 하지만 환자가 나에게 몸을 맡겼을 땐 조금은 버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환자의 치료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할때까지 그 과정의 어려움과 감동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것 같아요.

누워만 있던 사람을 앉게하고 서게하고 걷게하고, 일상 생활 동작을 하게하고,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사람이 놓여진 환경에서 우리는 최적화되게끔만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작지만 진정으로 큰 행복을 주는 직업, 물리치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